



본사 김두식 기자
미국 IT업체 탐방기(上)

차세대 핵심 코드는 '문화'

디지털 도메인(Digital Domain)사

본사 뉴미디어부 김두식 기자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 8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 연수는 이론 교육과 현장 방문을 위주로 진행된다. 김두식 기자가 처음으로 방문한 업체는 디지털 도메인 사. 업체 방문 소감을 현지에서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편집자 주>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핵심역량을 가진 디지털 도메인(Digital Domain)사를 둘러 본 것은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갖는 계기였다. 아울러 불교문화의 다양한 상품화와 세계화를 위한 길 역시 디지털콘텐츠 확보에 달려 있음을 절감했다.

영화 '타이타닉'을 본 관객이라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장면을 인상 깊게 보았을 것이다. 비록 현실은 아니지만 현실로 착각할 만큼 역동적이었고 사실적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저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컴퓨터 그래픽(CG)에 있다. 영화 '타이타닉'의 특수효과를 맡았던 디지털 도메인은 영화 '타이타닉'로 일약 스타 감독의 대열에 들어선 제임스 카메론과 루카스 필름의 부사장을 역임한 스티브 로스 회장이 93년에 설립한 벤처회사다. 현재 아이엘엠(ILLM)과 픽사(Pixar)와 함께 컴퓨터 그래픽(CG)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제작한 영화만 해도 '타이타닉', '반지의 제왕', '아폴로 13호', '타미네이더 2', '제5원소', '천국보다 아름다운' 등 이름만 들어도 '아!' 하는 탄

성이 절로 나온다. 또한 나이키, 벤츠, GM 등 세계적인 회사의 CF를 만들었다. 1998년, 99년에는 디지털 도메인이 특수효과를 맡았던 영화 '타이타닉'과 '천국보다 아름다운'이 연속으로 아카데미 특수효과상을 수상하면서 '마술공장'이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

하리우드 서쪽 베니스비치에 위치한 디지털 도메인을 처음 방문한 기자는 나름대로 기대가 컸다. 너무나 잘 알려진 세계적인 회사인데다 직원만도 전세계 지사를 포함해 600명이 넘는 큰 회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 디지털 도메인에 도착했을 때 '여기가 디지털 도메인 맞아요?' 하는 의심이 들었다. 주택가 근처에 2층짜리 건물 몇栋, 조그마한 주차장, 디지털 도메인을 알리는 조그

아이엘엠, 픽사와 함께 CG 세계 최고 '타이타닉' 등 특수효과상 수상

마한 간판 등이 전부였다. 그러나 건물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나의 생각이 기우였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2D, 3D, 미니어처 촬영 세트, CF 등 분야별로 하는 일이 전문화되어 있었고 회의장, 작업장 등 회사 공간들의 인테리어가 창의적인 작업을 수행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게다가 직원들도 자유분방했고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방인, 그것도 연수 생활의 방문에 대해서는 경계의 눈빛을 보였다. 준비해간 카메라를 꺼내기 무섭게 활영을 제지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작업 공간을 들여다 볼 기회는 전혀 주지 않았다.

유학생신분으로 디지털 도메인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이태정 씨는 '회사에서는 창의적



스카츠로 디지털 도메인사 회장

인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상 직원들의 개성과 예술적 재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고 있다'며 '직원 개인의 끼와 재능이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 디지털 도메인의 자력'이라고 소개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디지털 도메인이지만 현재 특수효과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가 아닌 한국영화 '집으로'와 유사한 시골 풍경을 그린 영화를 제작중이다. 화려한 특수효과나 기술보다는 인간의 심금을 울리는 그 어떤 것, 즉 우리 몸속에 체화되어 있는 감흥이나 유행어의 문화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경영진의 철학이 이번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

디지털 도메인 스티브 로스 회장은 '기술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지 인간 삶에 궁극적인 해답을 주지 못한다'며 자신의 일화를 들려주었다.

"어린 시절 숲에 들어갔을 때 인디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궁금증에 사로잡혀 고

민한 적이 있습니다. 훗날 제가 특수효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린 시절 가졌던 인디언의 삶에 대한 동경도 작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몇 천 년 전의 인디언들의 삶을 재현할 수 있고 고대인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복,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물음의 해답은 기술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도메인은 최근 한국 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숙달된 전문인력들을 미국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고 IT 기술력과 인프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

직원 개인의 재능 공동작업 땀 큰힘 한국, IT-전통문화 결합되면 가능성 커

수하기 때문이다.

소극장에서 디지털 도메인의 홍보 비디오를 직접 보여준 스티브 로스 회장은 "반년 전의 시골 풍경을 자랑하는 한국의 경우 전통문화에 예술적 유산이 IT 기술과 결합된다면 세계적인 영화나 게임 등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7월 23-25일 산업자원부 주제로 열린 '차세대 성장 산업 국제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한국이 지식기반산업(콘텐츠산업) 육성에 성공한다면 5년 후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해 한국 인문의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보다 더 서구화된 일본은 세계 어디를 가도 일본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한국적인 것을 잃어버려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표시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대목이다.

디지털 도메인에서 근무했던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이경인 교수는 "하리우드 영화는 미국의 가치관을 전세계에 전파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한국의 문화가 스며든 문화콘텐츠를 세계인의 취향에 맞게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해외불교사이트 순례

붓다사사나 (<http://www.saigon.com/~anson>)



베트남 불교학자 빈 안선 박사가 개설한 붓다사사나(<http://www.saigon.com/~anson>)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여러 논문과 원전에 관한 소개를 베트남어와 영어로 제공하고 있어 인기다.

불교계의 환경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달리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고자 한다면 베트남 유력 불교잡지 편집장인 티안 스님의 글 '불교와 환경보호운동'을 읽어보자. 티안 스님은 환경파괴는 인간 마음의 황폐화에서 온다고 지적한다. 자비의 정신으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환경보호라고 강조한다.

이외에도 교리에 관한 개괄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 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지지하며 살아가는 불자들을 소개하는 '살아있는 부처' 등도 찾아볼만한 글들이다.

IT 단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설립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처리, 상담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설립, 운영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공공서는 법률과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하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법적 근거와 목적,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8월 22일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휴대폰 발신번호표시 요금 인하

10월 1일부터 휴대전화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 이용요금이 월 2천원에서 1천원으로 50% 인하된다. 정보통신부는 8월 25일 SK텔레콤이 10월 1일부터 CID 서비스 이용요금을 월 2천원에서 1천원으로 50% 인하하는 내용의 이용약관 변경 인가신청을 제출, 이를 받아들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ID무료화소피지행동은 부가서비스가 아닌 기본서비스에 대한 요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경전의 이 말씀, 당신께서 부처하는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정화수사는 본래는 먼저 자료를 보시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ntr.co.kr>

E-mail : bokbat@kornet.net

제5기 선심리상담·명상지도자 양성 및 특수과정 모집

▶ 선 심리상담명상지도자란?
현대사회 정보문화의 발달로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참 나를 알고 존중 속에서 당당하고 있다. 그리고 도덕 불경과 각종 공해로 인한 스트레스(번뇌)와 불안정적 등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연치유력으로 정신심리요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 한국선심리상담연구원에서는 참선수행 명상교육, 불교적 소양, 정신분석, 심리학, 대체의학 등을 연구하여 인간 심층심리에 관여하고 있는 불안정적 심리적 에너지에 대한 방법을 개발하였다. 한편 이 심리치유법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스로 참 나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세계적인 전문 양성과정 프로그램(명상)을 겸한 최상의 선심리상담명상지도자 양성 과정을 '선 심리상담명상교육'이라 하고, 이 전문기를 '선 심리상담명상지도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주요 교과
▶ 불교학 개론 ▶ 선 심리치료학 개론 ▶ 무아선 무명상호출법
▶ 참나 찾기 특수프로그램 ▶ 금강경 능엄경의 선 심리
▶ 선불교와 요가심리 ▶ 동양적 통합심리치료법
▶ 청소년 임상심리 ▶ 육성과 심리치료 ▶ 사교 심리치료

▶ 교과 일정 (일반과정)

과명	요일	시간	기간
명상	목요일	11:00~12:30	9월 4일~12월 18일(4개월)
특수	수시모집(15명 이하, 3박 4일, 수련원)		

▶ 주요 강사진
▶ 이법선스님: 동국대 정경원장, 한국선학회 회장
▶ 백성향 박사: 백성향 신경정신과 원장, 통합심리치료 전문의
▶ 김철희 박사: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참나지도자회 고문
▶ 이명우 교수: 한국청소년상담원 책임연구원
▶ 고경호 교수: 한국사이코드라마 소스오드라마 학회 교육이사
▶ 주영철 교수: 동국대학교 교수/미움의 전화 전문의원
▶ 김도각 스님: 한국선심리상담연구원/미움의 전화 원장

▶ 입학자격 - 제한없음

▶ 특전
① 한국선심리상담연구원 가입 자격
② 선 심리치료상담 전화인 미움의 전화 개설시 자격증 및 자료 제공
③ 참나 찾기 팔관제 큰 모임 (선 심리명상수련회) 참가 자격 (문화관광부 후원 선 심리상담명상수련 프로그램 18회 개최)

▶ 수강신청 2003년 8월 11일 ~ 9월 15일(통신통과도 가능함) (단 특수과정은 개별방문상담)

▶ 문의 및 수강신청 미움의 전화/한국선심리상담연구원/무아선무명상호출연구원
TEL : 02)738-1275(심리치료), 02)326-0248 / 9 (F)
H.P : 016-301-4080

상담 참나찾기지도자회 부설
한국선심리치료연구원 / 마음의 전화

친환경을 선도하는 기업 유형!

날벌레, 모기, 나방 등 각종 해충 퇴치!

해충잡는 박멸기

날벌레, 모기, 허수사기 등 각종 날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자외선 3파장 전광범프를 이용하여 벌레를 유인, 팬의 흡입력으로 팬 아래 위치한 채집망으로 벌레를 빨아들여 냄새나 향, 소리가 없어 해충을 박멸시키는 장치이다.

▶ 제품의 특 · 장점

1. 실내에 하나만 걸어 놓으면 모기와 날벌레를 썩 잡아 버립니다.
2. 조명경용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흡입력으로 냄새와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3. 날벌레들이 좋아하는 빛을 발산시켜 팬으로 빨아들여 모기, 날벌레, 나방, 해충을 박멸시키므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식 절전형으로 제작되어 전기료가 경제적입니다.
5. 전원을 끄면 서터팬이 작동되어 달하게 되므로 포집된 해충들이 제품 외부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6. 모터의 용량이 크며 팬의 직경이 커서 흡입력이 뛰어나며 넓은 변경의 해충을 유인하여 박멸한다.

▶ 심음 신안등록 출원 제(02)91020호

주식회사 유창
www.ryuchang.com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572-9
TEL : 031)358-5011~6 FAX : 031)358-5017

명가의 명향 - 석씨향방

2003년 3월 5일 'MBC 6mm 세상' 방영

울향, 침향, 단향, 유향, 감송향, 사향, 육계, 안식향, 용뇌, 목향, 회향 외 기타 등등의 최고급 순수 향약재만을 사용합니다.

석씨향방은 최고의 제품만을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추석맞이 최고의 선물!!

무명장수베개
박하, 과학, 강황, 방풍, 당귀, 천궁, 석창포, 오수유, 민행지 외 기타 등등의 순수 한약재로 만들었습니다.

* 당도 · 중풍 · 폐 · 간 · 심장 등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였으며, 화공약품은 0.1%도 안되는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 석씨향방의 캠페인 - 건강을 위해 천연향을 애용하십시오.

대리점 모집중

☎ 02) 538-7161 / 3210-0880
강남대리점 02)511-4240 독립문 대리점 02)733-4440

세계 최대 단일석성 열반와불 봉안 성전

발원 원만성취 기도도량 성광미륵사

귀의 삼보충고
불제자의 꿈은 부처님 성전을 만들어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전 이러한 원력으로 기도장전을 하던 중 경기도 포천에 천년 기암터가 있다는 말을 듣고 풍수사님 스님과 동행하여 이곳 기암터 마진 3리 삼팔골의 큰굴을 찾게 되었습니다. 심로 천년 대가람 티라소 손색이 없는 산세 웅장한 곳이었습니다.

인연의 지중함을 몸소 깨달아 바로 스님 매달려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충남 본산이 고향인 소남은 어릴 때부터 보아오던 관속사 은진 미륵을 생각하고 세계 최대 미륵불을 세우겠다는 사원을 다짐하였습니다. 불철주야로 부처와 기도도를 하던 중 부처님의 예시 선봉을 하였는데, 공굴에 불사 터에 있던 돌 위에 동자 부처님 다섯 분이 나타나 온천지가 피란물로 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로 더불어 돌을 파보니 길이 10m에 달하는 거대한 돌이 나왔습니다. 이에 사원을 세웠던 동자부처님 열반와불을 조성하고 주위 큰 돌들을 다듬어 동자부처님 다섯 분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예도 대구 선봉사 부처님과 동일한 통상으로도 조성한 것만으로도 부처님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자님들께서 순례하시고 깊은 원력으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여덟 불자님들은 정성기도로 소원을 이루었고, 중생의 여러 번뇌로 고민하던 불자님들도 모두 소원을 성취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불자님들이 지극정성 기도하며 원만성취를 발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단일석성 열반와불은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불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아픔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원 왕생극락 - 지장보살 남골담 신정만남입니다.

포천 성광미륵사(열반와불사) 주지 성광 합장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진 3리 13-1 삼팔골의 큰굴
031-544-0048, 4800 / 011-9167-0048